캐리어 매각 급물살… 오늘 노조 투표

고용승계·성과급 지급 등 의견 접근
우선협상자 시노코파이프 본격 실사

캐리어(주) 매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캐리어 인수 우선협상자가 선정된데 이어 대규모 정리해고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캐리어 노조와도 매각과 관련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1일 캐리어 노조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캐리어 인수 우선협상자로 서울에 소재한 신소재 친환경 파이프 개발·제조회사인 시노코파이프가 선정돼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

캐리어와 시노코파이프는 회사명은 그대로 사용하고, 전 직원의 고용승계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대금과 관련해서는 현금 인수가 아닌 투자를 통한 지분 51% 확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우선협상자인 시노코파이프는 지난해 대규모 정리해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캐리어 노조를 최근 만나 인수 조건 등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노코파이프와 캐리어 노조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면담을 통해 전 직원의 고용 승계, 노조 인정, 흑자 전환 시 성과급 지급 등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사갈등을 불렀던 정리해고자 전원 복직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캐리어 노조는 시노코파이프와 면담 결과를 토대로 '2010 단체교섭 의견 일치안'을 마련, 22일 광주공장과 서울사무소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앞서 20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안과 매각에 대해 설명회를 열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시노코파이프는 다음달 말 인수를 목표로 캐리어에 대해 본격적인 실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캐리어 인수 우선협상자인 시노코파이프는 도매 및 일반무역업을 하는 (주)동방리쏘스에서 지난 2008년 분사했다. 세계 최초로 금속과 유기이온을 결합한 동파이프 대체용 가스압력관을 개발했다.

한편 캐리어는 광주 하남공단에 소재한 에어컨 전문업체로 미국의 캐리어사와 대우그룹의 지분 참여를 통해 지난 1985년 대우캐리어(주)로 설립됐다. 1986년 광주공장을 세워 콤프레서, 에어컨, 공조시스템 장비를 생산·판매해왔으며 1990년 본사를 광주로 이전했다. 2000년 캐리어가 대우의 지분을 전액 취득해 지금의 회사명으로 변경됐으며, 현재 회사주식은 다국적 기업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UTC) 그룹'이 가지고 있다.

캐리어의 지난해 매출액은 2766억원, 영업손실은 373억원, 당기순손실은 283억원을 기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세방전지 500억 들여 광주 3공장 설립

광주시 12개사와 MOU

광주시가 국내 최대 배터리 기업인 세방전지(주)를 포함한 전자, 정밀금형, 헬스케어 등 신성장산업 분야 12개 기업과 770억여원에 이르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세방전지(주), 태양광발전장치 제조기업인 서평전기공업(주), 바이오-IT융합기술 선도기업인 (주)세라젬메디시스, 무전극램프 생산기업인 (주)알·에스·티 ENG,금형 및 전자부품을 공동개발 생산협력을 위한 광주복합융합협의체(GM TECH등 8개 기업)와 775억원을 투자하고 360명을 고용 창출하는 내용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세방전지(주)는 2011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500억원을 투자해 하남산업단지 광주공장 6610㎡ 부지에 제3공장을, 서평전기공업(주)은 65억원으로 평동산업단지 내 3305㎡ 부지에 철재가로등주 설비 라인과 태양광발전시스템 제조 라인을 각각 설립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들 투자양해각서 체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보조금 확대, 기업 금융 확대, 인력지원,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원스톱 행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기업도우미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檢 사정칼날에 베일라…재계 초긴장

태광 이어 C&그룹 등 동시 다발적 수사 '전전긍긍'

태광그룹, 한화, C&그룹 등 검찰의 대기업에 대한 사정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속도가 붙으면서 재계가 검찰의 '칼끝'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 현대, SK, LG 등 전방위에 걸치면서 '차떼기'라는 유행어를 낳은 2004년 대검 중수부의 대선자금 수사를 떠올리며, 이번에도 검찰발 폭풍이 몰아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21일 "대통령의 '공정사회론'과 맞물려 2004년 대선자금 수사에 버금가는 대기업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재 기업풍토에서 '마음먹고 털어서 먼지 안나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현재 강도높은 검찰 수사를 받는 태광그룹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가 예상밖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돼 그룹에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라며 "추측성 보도까지 쏟아져 일일히 대응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화그룹은 "검찰에 적발된 차명계좌들은 김승연 회장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았으나 미처 실명화하지 못한 상속재산이며 불법비자금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몰라 전전긍증하는 모습이다.

롯데그룹은 계열사인 롯데건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들 기업 외에도 재계 10위권 기업 한 두 곳이 추가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설이 나돌면서 재계는 전에 없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스폰서 검사' 위기를 거치면서 실추된 국민적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대검이 대기업 관련 수사 정보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수집해 일선 지검으로 배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대기업 수사가 폭넓게 고강도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전무는 "기업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고 수사 대상기업이 확대될 경우 경제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진실은 밝히되 기업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순천대·광주대·호남대 산학연 기술개발 '우수'

순천대·광주대·호남대·전남대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소기업청은 21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한 대학 212곳과 연구기관 28곳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우수 기관 1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과제를 3개 이상 완료한 178개 대학 중 순천대와 광주대·호남대·전남대 등 14개 대학이 가장 높은 평가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17개 연구기관 중에서는 한국기계연구원 등 4곳이 A등급을 받았다.

중기청은 A등급을 받은 18개 기관은 다음 사업에 간접경비를 5% 추가 지급하고,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17개 기관은 지원금을 5% 삭감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1일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남철원 위원장 등 간부들이 광주 하남공단에 있는 부품 납품업체 동명정공을 방문, 협력사 직원들을 격려하고 동반성장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 제공〉

기아차 노조도 협력업체 챙긴다

이례적 방문 …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 제시도

무분규 임단협 타결이라는 성과를 낸 기아차 노조가 이번엔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협력업체를 방문, 화제가 되고 있다.

21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남철원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이 광주공장의 부품 납품업체인 동명정공을 찾아 "광주공장 50만대 증산과 품질 안정화의 일등공신은 협력업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공장 생산차종의 생산량 증가와 품질 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던 이면에 기아차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어려운 시기를 넘긴 협력사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했다"며 "협력사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력업체 모범사원 해외연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협력업체에 체육비품과 장갑 등 안전장구 등도 전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산업단지 작은 음악회
오늘 광주 첨단산단서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는 22일 오후 5시30분 광주사이언스밸리(첨단산단) 내 첨단 5길에서 '제2회 추억과 사랑을 나누는 작은 음악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는 산업단지가 친환경적이고 문화적인 공간으로서 지역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골드텔·(주)광주인탑스·라이텍코리아 등 10개 입주기업 근로자와 가족, 지역주민 400여명이 참여해 가족 노래자랑 등을 펼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상장사 35% '부실기업'

561개사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아'
부동산 자산·잦은 증자 덕에 퇴출 면해

국내 상장기업의 35%가 부실기업이며, 이 가운데 절반은 만성적인 부실에 빠진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금융연구원 이지언 금융시장·제도연구실장이 국내 1600개 상장회사(지난해 9월 기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부실기업은 2008년 현재 561개로 35%를 차지했다.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 비율이 100%에 못 미치면 돈을 벌어 이자도 못 갚는 셈이다.

특히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에 못 미친 기업이 289개로 전체 부실기업의 51%가 부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넘은 부실기업도 143개에 달했다.

3년 이상 만성적 부실기업은 정보기술(IT), 전자, 미디어 업종에 많이 분포했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 15개(업종 내 비중 31.9%), IT서비스 13개(31.7%), 통신장비 27개(31.4%), 섬유·의복 22개(30.1%), 전자장비·부품 26개(22.4%) 등이었다.

이들 부실기업은 수익성도 매우 낮아 퇴출기업과 맞먹는 수준으로 분석됐다.

전체 부실기업의 약 30%인 160개는 부채비율도 200%를 넘는 '이중 부실기업'이었다. 이중 부실기업의 매출액 평균은 전체 기업의 절반에 못 미쳐 상당수가 중소기업일 것으로 추정됐다.

퇴출당해도 이상할 게 없는 부실기업이 오랫동안 버티는 '비결'은 부동산과 잦은 증자 덕분으로 분석됐다. 3년 연속 부실기업의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였고, 부동산 자산이 매년 평균 13%씩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874.69 (+4.25)
▲ 코스닥지수	522.66 (+2.45)
▲ 금리 (국고채 3년)	3.29% (+0.03)
▲ 원·달러 환율	1,129.60원 (+2.7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6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0타경 16500	1	북구 운암동 1011 운암산아이파크 102동 5층 503호 156.7177㎡	아파트	420,000,000 420,000,000	
2010타경 16692	1	북구 용두동 296-1 비동 4층 403호 63.18㎡	아파트	40,000,000 40,000,000	토지별도등기있음
2010타경 16975	1	남구 주월동 1203-9 세왕그린파크 101동 901호 59.85㎡	아파트	63,000,000 63,000,000	
2010타경 17268	1	광산구월곡동 685-1 영천마을주공아파트 1007동 18층 1803호 84.03㎡	아파트	110,000,000 110,000,000	
2010타경 17572	1	광산구 우산동 1602-2 106동 6층 607호 49.86㎡	아파트	43,000,000 43,000,000	
2010타경 18544	1	광산구 우산동 1085 주공아파트 11동 5층 501호 51.09㎡	아파트	37,000,000 37,000,000	
2010타경 19189	1	동구 운림동 582 101동 3층 301호 155.7024㎡	아파트	192,000,000 192,000,000	
2010타경 20127	1	남구 주월동 482 서강아파트 101동 10층 1007호 59.94㎡	아파트	60,000,000 60,000,000	
2010타경 22765	1	북구 문흥동 787-1 106동 9층 907호 59.39㎡	아파트	65,000,000 65,000,000	
2010타경 23249	1	서구 풍암동 1054 풍암지구신암마을새한센시빌아파트 103동 4층 406호 82.6212㎡	아파트	145,000,000 145,000,000	
2010타경 24297	1	북구 용봉동 999 쌍용예가 106동 1층 102호 126.0042㎡	아파트	264,000,000 264,000,000	
2010타경 24624	1	광산구수완동 933 해솔마을현진에버빌1단지 103동 18층 1803호 169.94㎡	아파트	464,000,000 464,000,000	
2010타경 24808	1	남구 방림동 436-1 삼일아파트 3동 1층 101호 72.42㎡	아파트	72,000,000 72,000,000	
2010타경 25269	1	서구 금호동 268-1 금호동진흥더루벤스 205동 14층 1402호 136.235㎡	아파트	420,000,000 420,000,000	2010타경34379[중복]
2010타경 25450	1	서구 양동 60-2 1동 10층1002호 84.92㎡	아파트	90,000,000 90,000,000	
2010타경 25627	1	광산구 월계동 755-5 건영아파트 104동 11층 1104호 86.11㎡	아파트	110,000,000 110,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0타경 19349	1	북구 두암동300 153㎡ 제시외가추등18.9㎡ 동소 300 1층 15평6홉 2층 9평4홉 부속건물 건평 5평5홉[주택]	대 단독주택	83,471,680 83,471,68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2010타경 20684	1	화순군 도곡면 평리 595 348㎡ 제시외 가추 등 24.5㎡ 동소 595 56㎡ 부속건물 55.5㎡[창고]	대 단독주택	38,103,600 38,103,6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0타경 14719	1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274 조은집빌라 지층 102호 112.134㎡	다세대	135,000,000 135,000,000	
[대지/임야/전답]					
2010타경 18223	1	북구 금곡동 15 4205㎡	답	79,895,000 79,895,000	
2010타경 18377	1	장성군 북일면 성산리 519 2188㎡ [토지대장상184㎡가519-1로분할되어구거및도로로이용되고있으나현등기부는분할전상태임]	답	16,134,000 16,134,000	
2010타경 19974	1	장성군 삼계면 수산리 752-3 1955.8㎡	답	10,430,880 10,430,880	공유자서봉주지분3분의1전부
	2	동소 754-2 999.9㎡ 동소 754-3 891.3㎡	답 답	10,086,400 10,086,400	일괄매각.공유자서봉주지분3분의1전부
2010타경 20493	1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53-7 925㎡	답	33,736,500 33,736,500	일괄매각
		동소 62-5 3044㎡	답		
	2	동소 68-7 2833㎡ 동소 68-8 2787㎡	답 답	43,836,000 43,836,000	일괄매각
	3	동소 73-4 2676㎡	답	20,337,600 20,337,600	
2010타경 21359	1	곡성군 목사동면 동암리 235 274㎡	전	31,023,000 31,023,000	일괄매각[과수목포함]
		동소 235-1 526㎡	전		
		동소 235-5 80㎡	전		
		동소 236 2013㎡	전		
2010타경 21502	1	장성군 남면 녹진리 126 278㎡	대	15,290,000 15,290,000	
2010타경 22468	1	곡성군 겸면 송강리 688-8 1022㎡	답	87,815,800 87,815,800	일괄매각
		동소 688-9 1573㎡	답		
		동소 688-10 2662㎡	답		
	2	곡성군 겸면 대명리 694-2 965㎡	답	9,071,000 9,071,000	
2010타경 23379	1	남구 임암동 산61 8166㎡	임야	269,478,000 269,478,000	
2010타경 23515	1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 508 579㎡	답	37,799,400 37,799,400	일괄매각
		동소 510-14 2010㎡	답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0타경 20974	1	광산구 우산동 1587-1 콜롬버스월드 3층 311호 98.129㎡	근린시설	522,000,000 522,000,000	
		동소 1587-1 콜롬버스월드 3층 312호 99㎡	근린시설		
2010타경 21847	1	남구 월산동 61-10 126㎡	대	352,574,060 352,574,06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 61-11 30㎡	대		
		동소 61-10 1층 104.06㎡[소매점] 2층 104.06㎡[사무실] 3층 104.06㎡[사무실] 4층 83.27㎡[주택] 지하층 99.28㎡[음식점] 제시외 주방 등 21.9㎡	근린시설		
2010타경 25771	1	광산구 신창동 1221-1 드림프라자 2층 204호 149.495㎡	근린시설	300,000,000 300,000,000	2010타경32014[중복]
[기타]					
2010타경 18223	2	북구 금곡동 465-1 385㎡ 동소 465-6 38㎡	답 도로	7,928,000 7,928,000	일괄매각
2010타경 20493	4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276 2016㎡ 동소 298 278㎡	전 대	17,642,800 17,642,800	일괄매각.목록6타인소유축사일부소재함
2010타경 24488	1	북구 풍향동 585-1 125.6㎡ 동소 585-1 점포,주택,사무소 1층 74.71㎡ 2층72.61㎡ 3층49.51㎡ 제시외창고20.4㎡	대 근린시설	164,458,020 164,458,02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0. 11. 9.[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0. 11. 16.[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영복